

# 비판·견제 넘어 결과로 책임지는 '현장 시장' 되겠다

본보는 남원시장에 출마한 김영태 남원시의회의 의장을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남원시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 의장은 늘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역구 민원은 반드시 일주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자세로 지역구민을 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정책이나 정견을 소개하고 싶은 출마자는 이메일(jmaeil@hanmail.net)로 보내주면 지면이 허락하는 한 게재해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보는 출마자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제시합니다.

### Q. 후보자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 농업·행정·교육 현장을 두루 섭렵한 '준비된 실용 행정가' 김영태입니다. 저는 농업 현장 근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업 현장의 애환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며 탄탄한 실무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교육 자치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후 제8·9대 남원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경제산업위원장을 거쳐 현재 시의회 의장으로 의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져온 실무와 8년의 의정 내공을 바탕으로, 이제 남원의 확실한 변화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 Q.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 남원은 제 평생의 터전입니다. 남원시의회의장으로서 정정을 견제하고 조정해 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을 이는 실행력'이 없다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예산과 정책이 논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는 사례들을 보며 실행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직접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결과로 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과 정책을 조율하며 현안을 해결해 온 의회의 경험을, 보다 강력한 행정의 집행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Q. 후보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우려는 부분은?

저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의 언어로 소통하고, 확실한 결과로 책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평생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책상 앞 서류가 아닌 농촌 들녘과 골목 상권에서 시민의 진심을 경청해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현장을 지켜온 것이 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농업·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한 이력을 바탕으로 청년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줄이고, 대

### 남원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실용 행정 추진

### 햇빛에너지 마을발전소 설립 세대별 맞춤형 복지 등 실현

화와 타협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유연한 소통 능력은 저만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저한 책임감으로, 남원의 산적한 과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신뢰를 증명하는 정치, 그것이 제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 Q. 지난 의정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지난 8년, 저의 발길은 언제나 시민의 일상 속에 머물렀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시절에는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완해 민생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자재 지원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민생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시의정으로서는 갈등보다 화합을 우선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가교가 되어 불필요한 정쟁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했습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며 쌓아온 시민의 신뢰, 그 과정 자체가 남원을 향한 저의 가장 큰 헌신이자 자부심입니다.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남원의 더 큰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Q. 후보 본인과 출마 지역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남원은 제 삶의 뿌리이자 정치적 모태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농업과 교육 현장을 누빈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연고를 넘어, 남원의 문제를 외부의 시선이 아닌 현장의 언어로 이해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농업 근무를 통해 농민의 애환을 함께했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냈습니다.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에도 제 발길은 사무실보다 농촌 들녘과 골목 상권에 머물렀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건네받은 투박한 손길



과 쓴소리로말로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만이 남원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고민하며 변화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진짜' 남원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다.

### Q. 출마지역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소멸 위기'와 '행정 불신 해소'입니다.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도 심각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검토중'이라는 말 뒤에 머무르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를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 있게 결론을 내고 실행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일지러와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책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남원이 정말 바뀌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그 효능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남원 재도약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 Q. 그동안 지역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공헌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 분야 예산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과 예산 반영에 힘써 왔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학부모·교사·행정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 Q.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 저의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실용 행정'입니다. 책상 위 검토에 머물지 않고,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끝까지 실행으로 완성하는 '책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지역 내 경제 순환 전 세대가 안심하는 도시라는 3대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원시청에 '원스톱 인허가실'을 설치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방치된 빈집을 공영주차장이나 생활 편의시설로 전환해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일상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행정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두겠다'는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며, 남원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Q. 당선되면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는?

- 먼저, '햇빛에너지 마을발전소' 설립을 통해 남원시민 기본소득 1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유휴부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습니다. 발전 수익은 '햇빛 연금'으로 시민께 환원해 생활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 100만원의 육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청년층에는 주거·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께는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2홀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남원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 관광과 연계해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유치와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과 유휴공간을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치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저는 남원에선 나고 자란 아들로써,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느껴왔습니다. 이제는 비판과 견제를 넘어, 결과로 책임지는 '현장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행정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호 기자

